

법정 스님은 말·글·행동이 일치하는 참 선승

만상좌 덕조 스님을 만나다

“허...허...허...(쿵쿵쿵쿵...)”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숲길에서 호흡과 조급한 심장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다. 스님과 약속시간보다 40여 분이 늦었으니 할 말은 없는 처지지만 전화를 해보고, 문자를 찍어본다. 겨우 전화 연결만 될 뿐 상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노랗다 못해 하얗다.

“천천히 오세요!!! 불일암은 험폰이 안됩니다!!!” 순천 송광사 불일암 덕조 스님의 문자 한 통에 기자 둘이 살아났다. 안심법문이 따로 없었다. 법정 스님의 만상좌다. 시간관념 철저하기로 소문난 그 스승에 그 제자일 것이라. 걸음을 재촉해본다.

법정 스님 열반 후 두 차례 안거가 지났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월 17일 동안거 해제 날 불일암에서 덕조 스님을 만났다. 법정 스님은 ‘상좌들 보아라’는 유언에 만상좌에게 10년간 오로지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송광사 문수전에서 동안거를 마친 덕조 스님은 살짝 아쉬웠다. 약속시간을 훌쩍 넘었지만 스님은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양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라며 따뜻하게 객을 맞이했다.

불일암은 봄기운이 만연했다. 법정 스님이 1975년부터 1992년까지 17년간 길들여 놓은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암자 곳곳의 잔디가 사라졌다. 불일암으로 올라가는 운치 좋았던 길은 넓어지고 파이는 등 피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었다.

“은사 스님이 가시고 나서 정말 번다해졌죠. 사람들은 불일암이 스님들의 수행공간이고 삶의 공간이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유적지를 방문하는 듯해요. 관광 코스 아닌 관광 코스가 된 거죠. 스님의 체취를 느끼려고 오는 손님들 문전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아요. 스님을 시봉하는 거니까 이곳에서 사는 거죠.”

덕조 스님은 ‘스님이 주고 간 큰 숙제’라며 오히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법정 스님이 손수 만든 뻘뻘용 의자 위에 방명록을 쓰도록 하고 책갈피와 사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5만 장의 책갈피가 나갔다고 하니, 하루 평균 400여 명이 불일암을 찾은 꼴이다. 그 소음과 번다함은 어떠할까.

뻘뻘용 의자에서 3m 떨어진 곳에는 법정 스님이 아끼던 후박나무가 있었다. 스님의 유골이 뿌려진 후박나무 아래는 사람들이 무심히 밟고 지나갈까 염려해 덕조 스님이 손수 대나무로 돌레를 쳐 놨다. 스님을 향한 애뜻한 마음이었다.

불일암 내부는 ‘텅 빈’ 공간이었다. ‘정갈’이라는 표현은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자의 표현이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수행공간에는 상좌들의 출입도 일절 금했었다. 청소부터 모든 것을 스님은 손수 했다. 오로지 수행을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덕조 스님은 아직도 스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정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양간으로 난 뒷문을 사용했다.

“지금도 스님을 생각하면 긴장이 돼요.”



2평 남짓한 공간의 다실. 균불을 때고 있지만 싸늘했다.

법정 스님에게 우편물을 전해주던 행사 시절을 떠올리는 스님의 눈에 긴장감이 들었다. 깐깐한 법정 스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영광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어렵고 긴장된 시간이기도 했다. 시간을 묵숨처럼 여기는 스님은 당신도 시간을 여기지 않았지만 상대방도 시간을 여기는 것을 용서치 않았다. 홀로 수행정진을 하며 있어 철저한 시간 관리가 없으면 수행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심부름 외에도 청소하고 시봉을 하는데, 스님은 딱 한번만 시봉을 보이시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하셨죠. 어른에게 두 번 묻는다는 것은 없거든요. 해내야 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긴장이었어요.”

법정 스님은 세납 52세가 돼 덕조 스님을 첫 상좌로 뒀다. 덕조 스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의 상좌가 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스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언제 가장 그리우신가요?”

“바로 지금요...”

“시절인연이 된 것일까요. 감히 스님의 상좌가 되겠다는 생각은 못했어. 하지만 송광사 행사 생활을 하면서 각오했죠. 안되면 재수라도 하겠다는 생각으로 받아주실 때까지 하겠다고요.”

법정 스님은 죽으려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 할 정도로 가장 무서운 스님이었다. 그 이면은 스님에 대한 공경심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법정 스님은 말과 글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 선승이었다. 행사 시절이었다. 새벽 3시 동지 팔죽을 주전자에 담아 큰 절에서 불일암까지 부리나케 들고 뛰어 올라왔다. 스님은 정진 중이었다. 또 신도들과 차를 마시다가도 예불 시간이 되면 스님은 어김없이 예불을 올렸고, 병상에 있을 때도 스님은 예불을 올렸다. 스님은 강원도 오두막에서도 홀로 자신과의 약속을 여기지 않고 청규에 따라 결제와 해제를 했다.

덕조 스님은 “공경심과 예경심으로 스님을 모셔온 것이 지금까지 여법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고 했다.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스님의 뜻에 따라 법정 스님의 일곱 상좌인 덕조(德祖), 덕인(德仁), 덕문(德門), 덕현(德賢), 덕운(德運), 덕진(德眞), 덕일(德日) 스님은 제법 수행자로 어디 가서든 모범을 보인다.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 상좌라는 것이 수행자에게 좋은 배경이기도 하지만 일거수일투족 법정 스님이라는 꼬리표가 큰 부담이기도 하다”고 고백했다. 스님은 “출가 장부는 구속받지 않고 당당하며,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조 스님은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다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출가 수행자라면 당당해야죠. 할 말은 하고 사는 거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에는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강원도에 주석하면서도 법정 스님은 해제 때가 되면 불일암을 찾았다. 상좌들과 차를 마시며 상좌들이 안거기간 중 어떻게 살았는지, 선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고 점검했다. 옛날 선방 이야기도 해주고 청규에 따른 수행자로서의 자세도 말씀했다. 스님은 언제 은사가 가장 그리울까?

“지금요... 아... 가슴 아프네요.”
홀리듯 던진 질문에 스님의 눈가에 촉촉해졌다. “살아계시면 뵈 수 있는데 안 계시니... 그게 가슴 아파요.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가슴 아프죠. 그게 모르겠어요. 더구나 1주기가 다가오니.”

애별리고(愛別離苦)가 스님을 스쳐가는 듯 했다. 법정 스님은 대중과 있을 때는 역새풀처럼 무심고 날카로웠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법정 스님의 열반 1주기를 앞두고 다양한 전시회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들고 있었다. 덕조 스님은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이런 저런 일들도 뭐든지 한번은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포교와 법정 스님의 뜻이라는 부분에서 상충하는 일들이 많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 법정 스님의 뜻을 오롯이 살리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칫 이벤트성으로 변질돼 스님을 팔아먹는 일이 되기 쉽기 때문이지요.”

법정 스님의 눈빛을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그 뜻을 알아차렸던 상좌는 지금도 스님의 살아있는 눈빛을 느끼고 있었다.

법정 스님은 유언에서 덕조 스님에게 10년간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에 의미를 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사 스님께서 항상 어디에 없애이지 말고 ‘자기답게 살라’고 했던 삶을 살아야죠. 10년 만 살겠어요?”

법정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이번 해제때 최근 조계종의 자정회와 해진 결사, 개신교와의 끊임없는 종교 갈등, 구제역 등의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말했을까.

덕조 스님은 “법정 스님도 모든 종교의 뿌리는 같다고 했다. 종교 간 갈등은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불교계도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한다. 긴장하지 않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응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혔다.

“세상은 본래 시끄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밖으로 토해내지는 것 뿐입니다. 내 문제를 남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자기 의견을 대중의 의견이라 말하고 자신을 대중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님은 시나브로 법정 스님의 모습을 닮아있었다.

덕조 스님은 오늘도 행사시절 법정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남들이 못하는 고생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삶,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삶을 사는 당당한 수행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었다.

글=이상인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다종교시대에 종교의 평화적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가?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성직자들이 모여 6년 동안 진행한 토론 및 대화의 생생한 기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종교가 평화로워야 세상이 행복하다!
차이와 다름을 넘어 상호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종교간 평화적 공존과 소통의 미학!

●종교인 대화 모임 참여자들

- | | |
|------------------|-------------|
| 서종범(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 김승혜(가톨릭 수녀) |
| 전해주(동국대 불교학과) | 양은용(원불교 교무) |
| 김희성(종교학자) | 이제민(가톨릭 신부) |
| 이정배(개신교 목사) | 최근덕(성군관장) |
| 최일범(유학자) | 한순희(가톨릭 수녀) |

종교인 대화 모임 | 국판 병행 | 570쪽 | 값 23,000원

참다운 선지식이 되는 가르침

42분 옛 선사들이 통찰한 삶의 지혜와 수행의 끝은 향기가 온전히 전해지는 책!

- 이 책은 수행자라면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이자, 남자로서의 삶과 수행의 나아갈 바를 일깨우는 장군죽비이다.
- 이 주해본은 각 법문에 대한 대의와 주해, 풍부한 해의와 각주를 통해 원문의 의미를 깊고 넓게 전달한다.



이동형 편저 | 신국판 양장 | 840쪽 | 값 45,000원